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35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283)	봉헌 (212)	성체 (178)	파견 (286)
---------	----------	----------	----------	----------

### 미사 전례 예절

- 미사 중에는 조용하고 정중한 자세를 가집니다. 옆 사람과 얘기를 하거나 다리를 포개서 앉는 것, 팔짱을 끼는 것 주보를 읽는 등의 해동을 삼가 합니다.
- 앉을 때는 등을 의자에 살짝 대는 느낌으로 앉습니다. 너무 등을 기대어 마치 눕는 듯한 자세를 하지 않습니다.
- 하느님께 바치는 우리들의 정성이니만큼 깨끗한 금전으로 준비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봉헌을 하러 나가면서 주머니를 뒤지는 모습은 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 미사 전에 미리 손을 깨끗이 닦습니다. 손을 다쳤거나 아이를 안은 사람은 입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면 됩니다.
- 주보 등 인쇄물은 성당에 두지 말고 집으로 가져가서 읽어보며 본당은 움직임과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합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9/2	이 마틸다	이바오로/황스텔라	박다니엘/황스테파노
9/9	유 요한	김유스티나/황스텔라	박다니엘/황스테파노
9/16	이 그레이스	이요한/황스텔라	박다니엘/황스테파노
9/23	이 마틸다	김헬레나/황스텔라	박다니엘/황스테파노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45	\$145	\$2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8/4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9/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8/11	김 마론/ 김 헬레나	9/15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8/18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9/22	이 요한/ 이 마틸다
8/25	황 가롤로/	9/29	유 요한/ 유 마리아
9/1	손 아놀드/ 손 쟈마	10/6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말씀의 이삭

원죄

-성기영 아가씨 | 작가, 작곡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저는 이런저런 책을 읽으며 설익은 고민들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날 무작정 버스를 탭니다. 지나다 보니 차창 밖으로 성당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동네의 정거장에서 충동적으로 내려, 그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진 조용한 성당에 앉아 있자니 고해소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사순 시기였나 봅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순서를 기다려 고해소에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돌이켜보니 그동안 또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간막이 너머, 알지 못하는 신부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의문인가요?”

“바깥에 나와서 다니다 보면 어느새 손이 더러워져 있어요. 큰 악의를 가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저 삶을 살다 보면 인간의 손은 자연스럽게 더러워집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를 외치지만 정말 내 탓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 자유를 주신 걸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우주 만물과 모든 현상의 원인, 결과를 다 알고 계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셨나요? 산이 거기에 있기에 산에 오르는 산악인처럼, 죄가 거기에 있기에 인간들은 죄를 짓는 것 아닌지요? 악이 버젓이 있는데 그건 또 하느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니, 그러면 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들의 모든 어미는 죄 중에 우리를 배었나요. 신부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원죄는 무엇인가요?”

침묵 뒤에, 신부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제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모든 것에 답할 수 있겠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체조배는 9 월 6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일요일 오후 7 시

이번 임원회의는 9 월 9 일 오후 7 시에 있겠습니다.

임원들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8 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친교실 에서 모임

성경공부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

오늘 미사 후 친교실 에서 소 공동체 모임이 있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은 다만 무지의 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 그런데 자매님, 하느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총은 왜 죄다 잊으셨습니까?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지, 왜 무죄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지를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를 물리칠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앞으로 그렇게만 하십시오.

흰옷에 얼룩이 묻었을 때 곤장 빨면 쉽게 지워지지만, 그냥 두면 나중에는 빨아도 지워지지 않지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즉시 손을 씻고, 바로 회개하십시오. 그것만이 앞으로 자매님이 할 일입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신부님의 말씀이 가끔 생각납니다. 오늘도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언제 더러워졌는지 알 수 없는 손을 씻습니다.

-서울주보 에서-

교리상식 신자가 이혼을 하면 조당에 걸려 성사 생활을 못 하나요?

민법상 이혼을 해도 재혼을 하지 않으면 성사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교회법에 ‘이혼’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법상 그 부부는 별거 중일 뿐입니다. 여전히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재혼하게 될 경우입니다. 이때는 교회법원에 혼인무효신청을 해야 합니다. 곧 이전의 결혼이 애초에 성립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아야 교회 안에서 새롭게 혼인성사를 올리고 성사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